

# 우리나라 베개(枕)에 관한 小考

— 遺物과 文獻을 통하여 —

## A Study on the Korean Pillows

慶熙大學校 家政大學 衣裳學科

教授 南 潤 子

嶺南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副教授 李 年 純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

Professor; Yoon Ja N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eung Nam Univ.*

Associate Professor; Yeun Soon Lee

### <目 次>

- |                      |              |
|----------------------|--------------|
| I. 序 言               | IV. 朝鮮時代の 베개 |
| II.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の 베개 | V. 結 言       |
| III. 高麗時代の 베개        | 參考文獻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t the basic data for the appropriate conditions of the pillows for the Koreans.

In this study, the origins, materials, the forms and the sizes of Korean pillows have been investigated by means of existing remains and the existing documentary recor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We can infer that ordinary pillows have already been used in a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because the pillows for the dead bodies have been unearthed from the tombs of this period.

2) Round pillows which are used nowadays to rest our heads have also been utilized as early as in Koryo Dynasty or even in the previous period. It is because the pillows described in Koryo Dakeyung are similar to the present round ones.

Most of the existing Koryo pillows have been made of ceramics. Their average length is  $20.0 \pm 5.4$  cm, the average low height is  $9.7 \pm 0.9$  cm, and their average high

height is  $11.8 \pm 1.2$  cm.

3) The material which has been used to make pillows in Choson Dynasty is various : textile, wood, rush, bamboo, ceramics, etc. Most of them have been made in a round form or in a form of lying square. The average low height of lying squares is  $8.1 \pm 2.5$  cm. The average high height is  $11.9 \pm 1.9$  cm, and the average length is  $19.0 \pm 5.6$  cm. The average diameter of embroidered pads attached to both sides of round pillows or the average length of one side of regular squares is  $12.5 \pm 2.3$  cm.

## I. 서 론

寢具의 種類는 各地域의 自然 및 社會의 條件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基本的인 構成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깔개, 덮개 및 베개의 3種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sup>

우리 나라의 寢具도 깔개인 요, 덮개인 이불과 베개가 基本이 된다.

베개는 누운 姿勢에서 머리에 괴는 물건으로서 枕이라고도 한다.

베개의 역할로서는, 使用者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睡眠姿勢를 維持하게 하고, 體動을 용이하게 하며, 바닥으로 부터 전해오는 소리나 진동을 遮斷하며, 또한 바닥과 接觸하는 頭部에 미치는 壓力을 緩和시키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베개는 우리들의 睡眠生活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生活道具이다.

寢具類의 形態, 크기등은 民族間이나 國家間에 다소 差異가 있으며,<sup>2)</sup> 또한 快適한 使用感을 주는 베개의 條件도 人種에 따른 體格, 地域的인 風土, 民族의 生活習慣, 住居樣式 및 組合하는 他寢具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였다.<sup>3)</sup>

베개에 관한 歷史的인 側面에서의 先行研究는 前川

喜重子<sup>4)</sup>와 前川泰次郎<sup>5)</sup>의 日本의 베개에 관한 研究가 있으며, 우리나라 베개에 관해서는 金蘭京의 朝鮮時代 베개모 紋樣에 관한 研究<sup>6)</sup>와 崔載憲의 朝鮮朝 木枕에 관한 研究<sup>7)</sup>등이 있다.

우리나라 베개에 관한 先行研究는 주로 朝鮮時代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意匠學的 側面에서 다른 것들이며, 베개의 使用感에 영향을 미치는 因子가 되는 素材와 크기, 높이등의 規格에 대한 研究는 報告 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適合한 베개의 規格과 條件을 設定하기 위해서 그 基礎資料로서 史的인 研究가 必要하다.

이에, 本 研究者는 現存遺物과 文獻을 통해서, 三國時代에서 朝鮮時代に 이르는 우리나라 베개의 素材와 形態 및 規格에 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遺物을 통한 資料 蒐集은 國立中央博物館, 은양民俗博物館, 호암미술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高麗大學校博物館, 誠信女子大學博物館 및 淑明女子大學校博物館의 소장품과 그 目錄의 記錄事項을 活用하였다.

文獻을 통한 資料 蒐集은 韓國閨服飾史資料選集, 韓國민속대관, 民學, 閨閣叢書 및 木漆工藝등을 活用하였다.

1) 大後美保, 生活科學 핸드북, 朝倉書店, 1976, p. 127.

2) 峯崎フミユ의 3人, 枕의 人間學的 研究, 日家政學雜誌, 20. 1. 1969, pp. 187-192.

3) 島居鎮夫, 睡眠의 しく미, 第1回 睡眠環境 シンポジウム, 睡眠環境研究會, 1986, pp. 2-5.

中島利誠, 快適性客觀, 評價方法, 日織消誌, 26. 1. 1985 pp. 12-13.

4) 前川喜重子, あが 國의 寢具의 研究, 福井大學學藝部紀要 第十六編 1973, p. 118

5) 前川泰次郎, 日本의 寢裝品, インテリア, 日織消誌, 20. 9. 1979, p. 73.

6) 金蘭京, 朝鮮時代 베개모 紋樣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7) 崔載憲, 朝鮮朝 木枕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産業美術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84.

## II.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의 베개

三國時代의 遺物 資料는, 百濟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木枕 2점<sup>8)</sup>과 驪州 梅龍里의 百濟 石室墳에서 出土된 石枕 5점이 있으며, 統一新羅時代의 資料는 慶州 忠孝里에서 出土된 石製頭枕<sup>9)</sup>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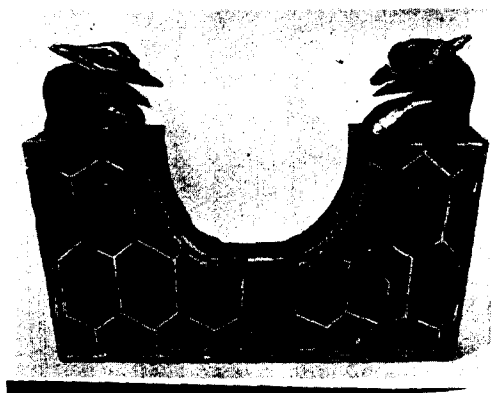
이들 中, 베개의 使用者가 確實히 밝혀진 것은 武寧王陵의 棺에서 出土된 王과 王妃의 頭枕이다.

이들은 6C 초의 것으로서, 비록 屍身用 베개이지만, 三國時代에 이미 木枕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物證이 되므로 史的 價値가 크다.

이들 頭枕은 통나무를 사다리꼴로 다듬은 뒤에 주변의 中央을 U字型으로 움푹 파서 머리를 놓을 수 있게 하였다.

王의 頭枕은 腐蝕이 심하여, 거의 形態를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王妃의 頭枕(圖 1)은 양쪽 끝 윗면에 얹혀 있던 木製 鳳凰頭와 함께, 그 形態가 온전하다.

두침의 全面에 朱漆을 하고, 그 위에 金박을 오려 붙여서 龜甲紋을 새겼으며 각각의 區劃 안에는 蓮花紋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늬가 그려져 있다.



【圖 1】彩畫金箔龜甲文頭枕(王妃, 武寧王陵)  
(李宗碩의 木漆工藝, p 199)

크기는 아랫변 길이가 40 cm이며, 윗변 길이는 44.2 cm이고, 전체 높이는 33.7 cm이며 머리 닿는 부분의 높이는 13.7 cm이고 두께는 12.2 cm이다.

또한 伽倻地方에 出土된 古代伽倻의 土製頭枕(圖 2)이 5~6C頃の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0)</sup>.



【圖 2】土製頭枕(伽倻時代)  
(호암미술관 명품도감 176)

이 土製頭枕의 길이는 32.9 cm, 높이는 10.5 cm, 폭은 10.1 cm이며, 베개의 윗면과 옆면에는 古代伽倻의 特有紋樣인 斜格線文으로 旋文되어 있다.

以上の 資料를 통해서 본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 頭枕의 素材는 木製, 土製 및 石製들이며, 形態는 사각기둥모양에 머리 닿는 부분을 움푹하게 판 形狀을 하고 있으며, 베개의 길이는 약 30~40 cm이며, 머리 닿는 부분의 높이는 약 10~14 cm이고, 두께는 약 10~12 cm로 나타났다.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의 資料가 적으며, 또한 資料의 大部分의 被葬品들이므로, 이들 資料로서 日常生活에 사용되었을 베개에 관해서 推定하기는 制限點이 있으나, 이와 類似한 베개가 使用되었을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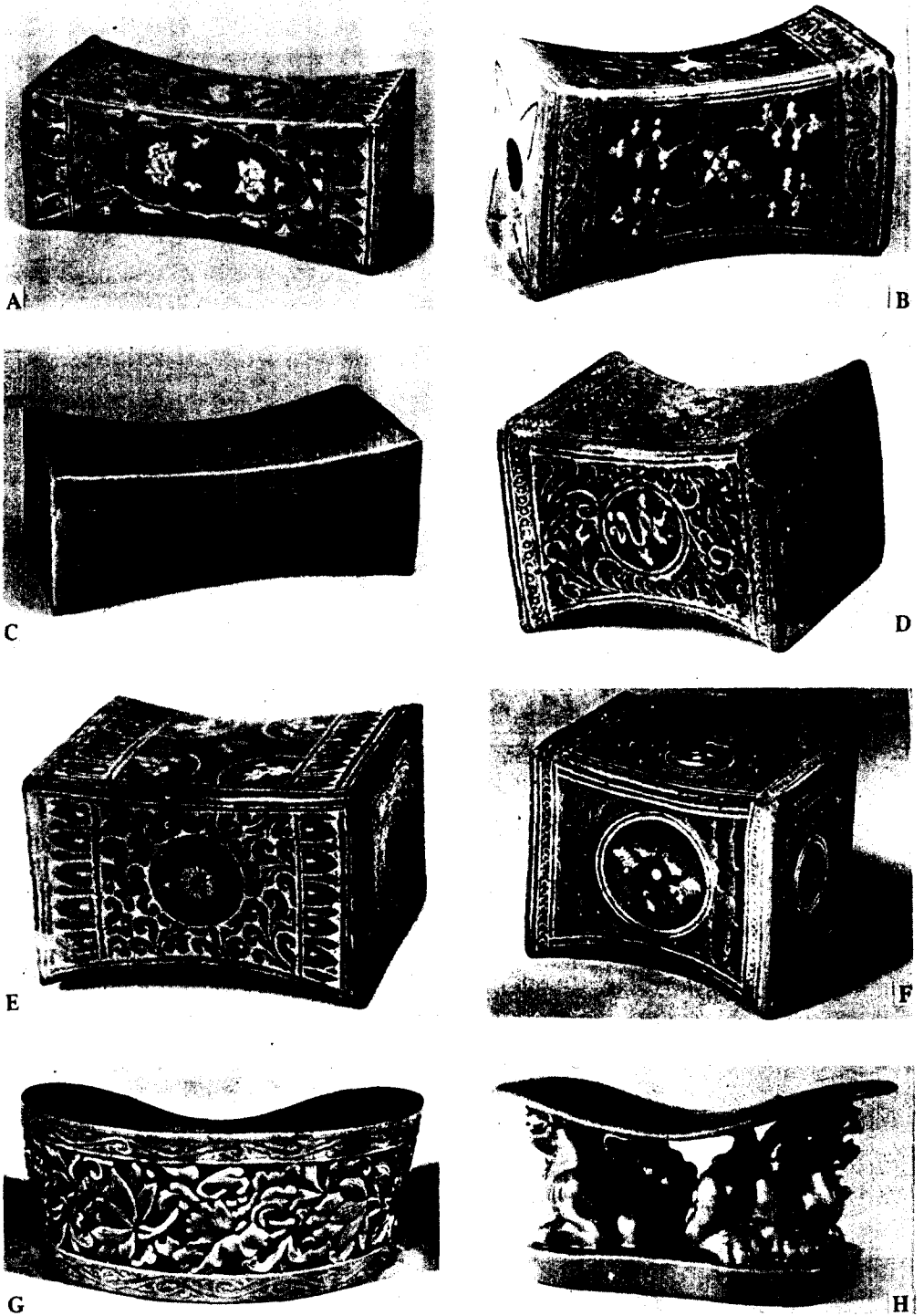
## III. 高麗時代의 베개

高麗時代의 베개는 陶枕類의 遺物이 많으며, 記錄上으로는, 「高麗圖經」 第29卷에 「繡枕의 형태는 圓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을 香草로 채우고, 양끝

8) 國立公州 博物館 소장, 국보 164호.

9) 문화공고부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1973, p. 44.

10) 호암미술과, 명품도감 176.



〔圖 3〕 高麗 青磁 秘의 形態

〈표 1〉 高麗靑磁枕의 크기

	명 칭	크 기 (cm)			소 장 처
		短 高	長 高	길 이	
A.	靑磁象嵌牡丹雲鶴文枕	9.3	12.5	22.8	國立中央博物館
B	靑磁象嵌雲牡丹文枕	10.0	12.6	21.3	安宅 collection(日)
C	靑磁陰刻牡丹柘留頭枕	11.3	14.3	27.0	國立中央博物館
D	靑磁象嵌雲唐草文枕	9.4	11.7	12.8	東坦個人 소장
E	靑磁象嵌牡丹菊唐草文枕	9.8	11.8	15.0	東坦個人 소장
F	靑磁透彫峯山水禽文枕	9.6	10.6	12.8	安宅 collection(日)
G	靑磁透刻蓮花文枕	·	11.2	26.7	國立中央博物館
H	靑磁獅子形枕	8.2	10.0	21.8	湖巖 미술관
평균 및 표준편차		9.7±0.9	11.8±1.2	20.0±5.4	

을 금색 마구리에 실로 수 놓은 꽃이 있는 것으로 마루렸는데 극히 정교하다…»는 귀절로 보아,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원통형의 베개 형태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入手한 資料의 대부분은 靑磁 베개이며 이들의 형태는 圖 3과 같다.

베개의 形態는 사각기둥을 뒀인 形狀이 가장 많고(圖 3의 A, B, C, D) 윗면이 타원형이고 아랫부분이 여러 모양을 한 것이 있으며(圖 3의 E, F) 또한 다양한 彫刻技法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紋樣을 넣었다.

베개의 크기는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概略의인 크기를 考察하기 위해 그들의 平均値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結果는 <표 1>과 같다.

수집한 資料 中에서 사각기둥 모양의 베개는 使用方法에 따라 두 가지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 項目에서는 短高와 長高로 표시하였다.

資料의 平均 短高는 9.7cm±0.9cm이고, 長高는 11.8±1.2cm로 나타났으며, 베개의 길이는 20.0cm±5.4cm로 나타났다.

높이 項目의 표준편차는 약 1cm로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높이임을 알 수 있었다.

길이 項目에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20cm 이상의 긴 것과 15cm 이하의 짧은 것의 두가지 형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며, 이들 각각의 평균 길이를

산출한 결과는, 긴 것은 약 23.9cm±0.8cm이고, 짧은 것은 13.5cm±0.9cm로 나왔다.

이들 두 가지 型이 용도에 따라 제작기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IV. 朝鮮時代의 베개

朝鮮時代의 베개에 관한 資料는 1. 素材, 2. 形態, 3. 크기를 나누어서 考察한다.

##### 1. 素材

遺物을 통해 살펴 본, 朝鮮時代의 베개 素材(圖 4)는 織物, 繡, 靑滋, 螺鈿, 莞草, 木材등이 있다.

朝鮮時代 베개의 素材에 관한 記錄은, 「禽枕以綾爲之 貧寒者有失時之嘆 若非本服綾段者 以本土所產紬與綿布爲之」라 하였으며<sup>12)</sup>, 이는 “베개와 이불을 능단으로 만들므로 빈한자들이 때를 잃어 탄식이 있으니, 만약 본래 능단을 사용 못할 사람이면 본토에서 생산되는 명주와 면포로 만들것”<sup>13)</sup>이라 하였고, 또 「…但子心以爲官中禽枕 已用紬布 禽枕乃閨房之所設 則於婚禮用紬布可也…」라 하였으며<sup>14)</sup>, 이는 “궁중의 금침도 명주를 쓰고 있는데 금침은 규방에서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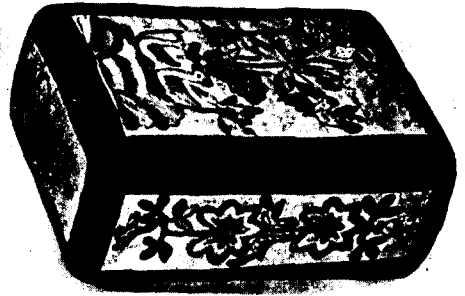
12) 朝鮮王朝實錄太宗.

13) 孫敬子の1人,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編工, p.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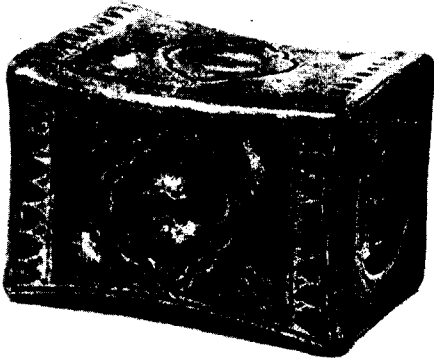
14) 朝鮮王朝實錄世宗.



A. 織物 (民學會, 民學 2,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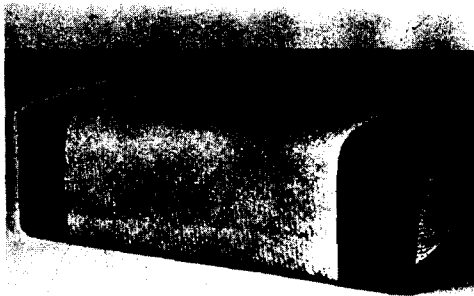
B. 刺繡 (溫陽民俗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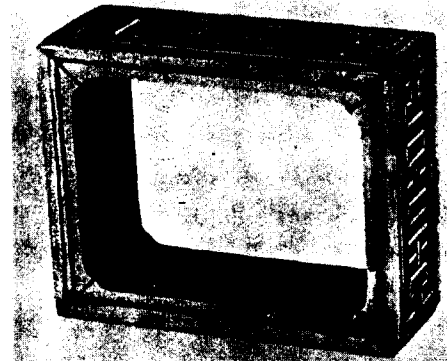
C. 青磁 (國立中央博物館, 東垣先生蒐集文化財, p. 337)



D. 螺鈿漆器 (國立中央博物館)



E. 瓦草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民藝美術 p. 139.)



F. 木材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圖 4〕 朝鮮時代 베개의 素材 및 形態

〈표 2〉 朝鮮時代 베개의 크기(사각기둥 모양)

일련 번호	品 名	크 기 (cm)			비 고
		短 高	長 高	길 이	
1	繡枕	7.0	11.5	16.4	온양민속박물관
2	靑磁象嵌雲鶴文枕	11.7	11.8	15.9	東坦 개인소장
3	木枕	6.0	11.8	15.0	國立中央博物館
4	접개 木枕	7.2	13.4	25.0	梨花女大博物館
5	木枕	5.1	10.7	16.2	개인소장
6	木枕	6.3	11.2	15.2	개인소장
7	木枕	6.3	10.2	13.7	개인소장
8	螺鈿木枕	미 상	13.3	24.6	國立中央博物館
9	刺繡花草文退枕	12.3	15.9	26.8	숙명여대박물관
10	木枕	8.5	8.7	15.2	고려대학박물관
11	竹枕	7.8	11.5	15.0	고려대학박물관
12	革枕	13.0	16.0	34.5	고려대학박물관
13	退枕	6.3	11.5	15.0	고려대학박물관
14	木枕	7.5	10.0	16.5	석주선기념박물관
15	竹枕	10.5	10.5	23.0	석주선기념박물관
16	木枕	6.0	12.5	15.5	석주선기념박물관
	평균 및 표준편차	8.1±2.5	11.9±1.9	19.0±5.6	

어 놓는 것이나 혼례에 명주를 써도 가할 것이다”<sup>15)</sup>등이 있다.

以上에서 遺物과 文獻을 통해서 朝鮮時代의 베개 素材는 織物이 많이 使用되었고, 그 외에도 磁器, 螺鈿, 莞草, 木製등이 사용되었다.

## 2. 形 態

베개 形態는 素材와 관계되므로 素材와 함께 圖 4에서 살펴보겠다.

織物로 만든 둥근 원기둥모양, 단단한 素材인 磁器로 만든 사각기둥모양과 形態를 다듬기 손쉬운 木材로 만든 特異한 形態등이 있다.

朝鮮時代의 베개 形態 中에서 주로 使用되었던 베개의 形態가, 오늘날에도 使用하고 있는 원기둥모양의 전통적인 베개와 비슷한 形態(圖 4의 A)였음을 많은 양의 베개모 遺物로 미루어 알 수 있다.

A型的 베개는, 천으로 둥근 자루 모양, 즉 원기둥 形態를 만든 후에 양쪽 마구리에 베개모를 대어 장식하고, 속을 여러가지 속재료로 채운 것이다.

속재료에는 솜, 곡식껍질, 꽃잎 말린 것, 쑥등의 식물 말린 것등이 사용되었음을 綿枕, 穀枕, 菊花枕, 決明子枕, 녹두枕 혹은 香草枕등이 속재료에 따라 불려진 베개 이름에서 엿볼 수 있다.

本人의 研究에 의하면, 近來에는 면솜과 식물말린 재료의 사용율은 낮아지고 화학섬유솜, 織物조각이 많이 사용되며, 오리털과 우레탄폼등의 新素材가 開發 使用되고 있다<sup>16)</sup>.

## 3. 크 기

入手한 資料 中에서 사각기둥형태 베개의 길이, 短高 및 長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15) 孫敬子の 1人,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編工, p. 188.

16) 李年純, 베개 使用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대한가정학회, 23. 2, pp. 21-28.

〈표 3〉 朝鮮時代 베갯모의 크기(cm)

일련 번호	品名	크기	소장지 및 유물번호
1	繡壽福枕	14	석주선(0024)
2	華角虎枕	14	" (0174)
3	螺鈿鴛鴦枕	10.5	" (0661)
4	"	11.5	" (0662)
5	"	13	" (0811)
6	幡靑白玉壽福枕 杆	9.8	" (1106)
7	繡鴛鴦枕	10	" (1286)
8	木刻壽福枕	13	" (1288)
9	木刻富貴枕	11	" (1289)
10	繡鴛鴦枕	13.5	" (1721)
11	繡鴛鴦枕	13.5	" (1914)
12	黃玉壽福枕	12	" (1945)
13	十長生枕	14	" (2447)
14	刺繡베갯모	11	숙명대(1155)
15	圓形彫刻베갯모	15.8	" (1298)
16	刺繡七寶文베갯모	11	" (1316)
17	자개 "壽福文"베갯모	12.2	" (1731)
18	刺繡九鳳文베갯모	11.8	" (2085)
19	靑華白磁雲鶴文베갯모	15	고려대 A-152
20	華角圓形베갯모	9	" 153
21	"	11.5	" 815
22	華角圓形베갯모	10.9	" 816
23	木圓形베갯모	12.5	" 223
24	木圓形壽福文베갯모	13	" 1144
25	石베갯모	13	" 1747
26	螺鈿圓形베갯모	9.5	" 2450
27	"	13.5	" 2644
28	白石象嵌베갯모	10.1	온양민속 박물관 459
29	螺鈿虎文	18.8	奠泰燕
30	자개 嬉字文 嬉嬉	12	에밀레 박물관 p32
31	자개 雙鶴베갯모	11.3	" p33
32	자개 十長生베갯모	12.8	"
33	漆彫刻쌍학문 베갯모	12.3	"
34	玉石福紋베갯모	11.9	"
35	玉石松鶴紋베갯모	11.6	"
36	玉石壽文베갯모	10	"
37	刺繡壽福文	19.4	"
38	刺繡虎文	11.5	권옥연
39	자개베갯모	11	국립중앙 박물관
40	"	17.7	"
41	화각베갯모	11.4	"

평균 및 표준편차 12.5±2.3

이들의 平均値는, 短高는 8.1 cm±2.5 cm이며 長高는 11.9 cm±1.9 cm이고, 베갯길이는 19.0 cm±5.6 cm로 나타났다.

베갯 길이의 표준편차가 큰 이유는, 23.0 cm 이상의 긴 型과 16.5 cm 이하의 짧은 型으로 大別되기 때문이다.

日常的인 베개로 추정되는 원기둥모양의 베개는 材料가 부식하기 쉬운 織物과 植物섬질이 속재료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實物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베개의 한 부분인 베갯모의 遺品이 많아서, 이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베갯 높이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왕겨나 메밀겉질을 넣은 원기둥모양의 베갯 높이와 베갯모 크기를 재어 본 결과, 속재료를 충만시킬 경우에서는 베갯모 크기와 베갯 높이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므로 圓形과 正方形의 베갯모의 지름 혹은 한 변의 길이를 통계 처리하여, 이를 개략적인 베갯 높이로 추정 하였다(표 3 참조)

베갯모의 지름 혹은 변의 길이 平均値는 12.5 cm±2.3 cm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朝鮮時代의 원기둥 모양의 베갯 높이는 약 10 cm~15 cm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높이는 사각기둥모양의 베개에 있어서 長高와 비슷한 數値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朝鮮時代 베개의 크기는 앞서 살펴 본 高麗時代의 陶枕의 크기와 비슷하며, 「한국민속대관」에서 길이 6치, 폭 4치 정도"라는 報告와도 근사하며, 崔<sup>17)</sup>의 "가로 193 mm, 세로 93 mm 높이 113 mm"라는 研究 結果와도 近接하다.

峯崎는, 日本 女大生을 對象으로 한 研究에서 바로 누운 자세의 快適한 높이를 4.8 cm±1.2 cm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6.8 cm±0.9 cm로 報告하며<sup>11)</sup> 日本 成人女子를 對象으로 한 花田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快適한 높이는 5.7 cm로 報告하고 있다<sup>12)</sup>.

이에 비해, 高麗時代와 朝鮮時代 베개의 平均 短高

17) 峯崎 フミエ의 3人, 枕의 人間工學的 研究, 日家政學雜誌, 20, 1, 1969, pp. 187-192.



가, 각각  $9.7\text{ cm} \pm 0.9\text{ cm}$ 와  $8.1\text{ cm} \pm 2.5\text{ cm}$ , 長高가 각각  $11.8\text{ cm} \pm 1.2\text{ cm}$ 와  $11.9\text{ cm} \pm 1.9\text{ cm}$ 로서, 약 2배 가량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II. 結 言

韓國人에게 快適한 使用感을 주는 베개의 規格과 條件을 設定하기 위한 基礎 資料로서, 現存하는 遺物과 文獻을 통하여 우리나라 베개의 素材, 크기, 形態에 대해 考察한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베개의 始原은 資料의 부족으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三國時代의 무덤에서 被葬用 頭枕이 出土된 점으로 보아, 이미 이전부터 베개를 사용한 것으로 推定한다.

2.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재래식 원기둥모양의 베개가 高麗時代 혹은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推定한다.

3. 現存하는 高麗時代의 베개는 陶枕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평균 크기는 短高  $9.7\text{ cm} \pm 0.9\text{ cm}$ , 長高  $11.8\text{ cm} \pm 1.2\text{ cm}$ , 길이  $20.0\text{ cm} \pm 5.4\text{ cm}$ 이다.

4. 朝鮮時代 베개의 素材는 織物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螺鈿漆器, 木材, 莞草, 竹, 陶器등이 사용되었으며, 베개 形態는 원기둥모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각기둥모양, 기타 특이한 形態도 사용되었다.

크기는 短高  $8.1\text{ cm} \pm 2.5\text{ cm}$ , 長高  $11.9\text{ cm} \pm 1.9\text{ cm}$ 로 산출되었다.

5. 高麗時代와 朝鮮時代 베개의 높이는, 日本人을 對象으로 하여 快適한 높이로 추정된 研究 結果의 약 2배 가량 더 높았다.

以上에서 考察한 結果를 토대로 하여, 快適한 使用感을 주는 베개의 條件이 民族 혹은 기타 要因에 따라 다른지를 규명해 보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快適感을 주는 베개의 規格 및 條件을 人間工學的 側面에서의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 參 考 文 獻

大後美保, 生活科學 핸드ブック, 朝倉書店, 1976, p.

127.  
 峯崎フミコ, 村上清司, 新村律子, 綱木洋子, 枕の人間工學的 研究, 日家政學雜誌, 20. 1, 1969, pp. 187-192.  
 鳥居鎮夫, 睡眠のしくみ, 第1回睡眠環境 シンポジウム, 睡眠環境研究會, 1986, pp. 2-5.  
 中島利誠, 快適性客觀評價方法, 日織消誌, 26. 1, 1985, pp. 12-13.  
 前川喜重子, わか國の 寢具の研究, 福井大學學藝部紀要「近世風俗史」第十六編, 1973, p. 118.  
 前川泰次郎, 日本の寢装品 インテリア 織維製品のうつりかわり, 日織消誌, 20. 9, 1979, p. 73.  
 金蘭京, 朝鮮時代 베개모 紋樣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문, 1973.  
 崔載憲, 朝鮮朝 木枕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産業美術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4.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王朝實錄編, 敎文社, 1982, pp. 98, 18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출판사, 1988, pp. 326-331.  
 民學會, 民學, 2, 1981, pp. 32-34.  
 鄭良婉, 閩閩叢書, 寶音齋, 1980, pp. 35-37.  
 李宗碩, 木漆工藝, 中央日報社, 1985, pp. 197-200.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圖鑑, 삼화출판사, 1972, p. 3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문화공고부 문화재관리국, 1973, p. 44.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명품도감, 1982, p. 176.  
 花田嘉代子, 上杉悦子, 廣田眞佐, 枕の高さ感, 硬さ感に關する研究, 日織消誌, 20. 5, 1979, pp. 42-47.  
 李年純, 베개 使用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대한가정학회, 23. 2, 1985, pp. 21-28.  
 鄭瑛眞, 朝鮮朝 刺繡紋樣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0.  
 金榮順, 李朝刺繡紋樣의 研究,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p. 71-72.  
 온양민속박물관, 한국의 민속, 啓蒙社, 1980, pp. 459-495.  
 日本經濟新聞社, 安宅 コレクション 東洋 陶磁名品圖錄, 日本經濟新聞社, 1980, pp. 122-123.  
 任東權, 한국민속학논고, 선명문화사, 1973, p. 87.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명품도록, 1982, p. 22.  
 野間省「東洋陶磁11권, 康炎社, 1980, p. 183.  
 橫田春夫, 羽毛製品について, 日織消誌, 20. 2, 1979, pp. 502-504.